



5일 첫방송하는 O tvN '주말엔 숲으로'에 출연하는 방송인 김용만, 배우 주상욱, 그룹 '하이라이트'의 손동운(왼쪽부터).



이준기·전혜빈 “친구에서 연인으로”

열애설 공식 인정

배우 이준기(35)와 전혜빈(34)이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기와 전혜빈 배우가 작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두 사람이 2년째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

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2014년 드라마를 통해 동료로 만났고, 처음에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좋은 친구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로 지내오면서 서로 공통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호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에 대해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세남자의 유쾌한 일탈 “주말엔 울로 갈까요?”

O tvN·tvN '주말엔 숲으로'

김용만·주상욱·손동운 출연

오늘 오후 8시 20분 첫 방영

YOLO(올로).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아보고자 하는 뜻을 나타낸다. 최신 트렌드인 이 단어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인 김용만, 배우 주상욱, 보이그룹 하이라이트의 손동운이 O tvN '주말엔 숲으로'에서 뽐냈다. 세 사람은 주말에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율로족(族)들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세 명 다 늘 작품이나 앨범 활동을 하는 입장이 만큼 삶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 세 사람은 첫 회부터 외국계 은행팀장으로 역대 연봉을 받다가 갑작

스러운 사고 후 제주도에서 돌고래 아빠가 된 김형우 씨와 만나 새로운 세계를 접했다고. 김용만은 4일 광화문에서 열린 '주말엔 숲으로' 기자회견에서 “우리 프로그램은 시원한 한 폭의 회화 같은 느낌이고, 그냥 깔깔 웃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며 하고 살자'란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용만은 2013년 불법도박 파문 후 3년간의 공백기를 가진 뒤 최근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담담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전 사실 복귀하기 직전에도 아내에게 '3년 쉬었으니 앞으로 3년 더 고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프로그램을 서둘러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뻔뻔하게 나서는 그런 성격도 못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해 소속 연예인 매출을 뽑았는데 제가 적자 1

위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신인처럼 돌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지난 1월부터 신인처럼 굴리더라. 어쨌든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용만은 아울러 “다들 인생의 꿈이 있는데 접고 싶다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깨닫게 됐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용만은 또 연에게 사조적인 '조동아리'의 멤버 중 '율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은 사람으로 유재석을 꼽았다. 그는 “유재석은 늘 방송국, 헬스클럽, 집만 왔다 갔다 한다”며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데서 '율로'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이종형 PD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떠난 주상욱, 김용만, 손동운이 첫 촬영에서부터 완벽한 호흡을 보였다”며 “세 남자의 밝고 경쾌한 에너지가 일상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전할 것이다. 넓고 푸른 바다, 초록의 싱그러움도 영상에 아름답게 담았다”고 말했다. 5일 오후 8시 20분 O tvN과 tvN에서 동시 방송. /연합뉴스



영화 '도청' 이정재·김우빈 캐스팅

최동훈 감독 범죄 수사극

이정재와 김우빈이 영화 '도청'에 캐스팅됐다고 이 영화의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도청'은 적의 숨소리마저 놓치지 않는 도청 수사를 통해 특수한 금융범죄를 쫓는 지능범죄 수사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범죄의 재구성'(2004), '타짜'(2006), '전우치'(2009), '도둑들'(2012), '암살'(2015)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의 여섯 번째 작품이다. '도둑들', '암살'에 이어 최동훈 감독과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이정재는 지능범죄

수사팀 형사 고창선 역을 맡았다. 예리한 눈썰미와 빠른 손놀림, 능수능란한 위장 수사로 작전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마스터'에서 개성 강한 연기를 선보인 김우빈은 교통계 경찰 박상대 역을 맡았다. 원칙을 고수하는 인물로, 다른 사건을 추격하던 중 우연히 지능범죄수사대의 비밀작전을 알게 된다. 중견 배우 김의성이 고창 형사 오형주로, 열연자가 지능범죄수사팀을 이끄는 감독관으로 출연한다. '도청'은 캐스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30 한국인의 밥상 (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지식통조림 55 데이트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VR 지평없는 박물관 (재)	00 이웃집 찰스 (재)	00 MBC스포츠 제19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대회	55 닥터 365
2	15 우리말 겨루기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00 뉴스브리핑
3	05 시사기획 창 (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2	
4	00 4시 뉴스집중	30 여유만만 (재)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보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여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골짜락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감성툰 고맙습니다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자채발광 오피스)	00 드라마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명견만리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5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лай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계의 폭포 빅토리아폭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덩동영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여행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시금치 바지락술법과 미역 오이초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극한직업(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기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영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워킹스텝이행동)	20:50 세계테마기행 (개척의 땅 미국 남서부기행 - 캘리포니아 드림 루트66) 21:30 한국기행 (어느 환한 봄날 - 산골 봄 편지) 21:50 EBS 다큐 프라임 (먼지 - 청소하는 날) 22:45 극한직업 (생활 자기 제작)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원조 국민 MC의 즐겁게 나이 드는 법- 방송인 이상벽)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5일(음 3월 9일 壬戌)	
子	48년생 예기치 못한 풍파를 만날 수도 있다. 60년생 이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72년생 잠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84년생 파도가 높으니 배를 띄우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4, 71	午	42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다. 54년생 처음부터 짧은 인연을 알고 대해야겠다. 66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78년생 결과 속이 딱 한 상태이니 수확하는 것이 이익이리라. 90년생 의미가 깊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6, 63
丑	49년생 기괴한 기운이 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61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이다. 73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나게 되어 있다. 85년생 성실함으로 풀리칠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33, 45	未	43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55년생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일이다. 67년생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두루두루 잘 살펴야겠다. 79년생 자기 발전의 동기로 삼자. 91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42, 59
寅	50년생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62년생 추후도 변경하려 들지 말라. 74년생 가벼이 여긴다면 그 속에 숨은 진가를 쉽게 놓칠 수도 있음을 알라. 86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복을 받으리라. 행운의 숫자 : 11, 34	申	44년생 급변하는 도량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56년생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피해가 예상된다. 68년생 체면 차라다가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80년생 기본에 충실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 77, 94
卯	51년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63년생 아무리 입이 간지러워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고생한 만큼에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87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성사되리라. 행운의 숫자 : 24, 59	酉	45년생 넉넉하게 배운다면 인심을 잃지 않는 법이다. 57년생 불편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69년생 혼자 조처함이 제일 속 편할 것이다. 81년생 예상대로 진행되었지만 의외의 변수도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라. 행운의 숫자 : 18, 78
辰	52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64년생 복잡다단함을 잘 정리할 수만 있다면 형세를 좌우할 만한 대국을 이룰 것이다. 76년생 예견된 상황을 간파해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천하일품을 대하게 될 것이니 기가 막히겠다. 행운의 숫자 : 35, 07	戌	46년생 밖에서는 전혀 쓸모없던 것이 안에서는 참으로 요긴하게 쓰이게 되는 형국이다. 58년생 크게 감동받게 될 것이리라. 70년생 길잡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 82년생 두드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3, 80
巳	53년생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자. 65년생 지인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77년생 희망의 징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89년생 행운의 바다로 나가고 있으나 배가 너무 작다. 행운의 숫자 : 72, 91	亥	47년생 진정시키느라고 애크 먹을 수도. 59년생 원점에서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71년생 이해관계인의 파격적인 제의가 보인다. 83년생 순식간에 상호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행운은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84, 72